광주FC 5경기 연속 무패…1위 탈환은 다음에

K리그2 안양 원정경기 2-2
엄지성·헤이스 골로 무승부
부천FC에 승점 1 뒤진 2위

광주FC가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지만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광주가 1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K리그2 2022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시즌 첫 무승부다.

4연승 뒤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광주가 5경기 연속 무패에 성공했지만, 1위는 부천FC에 내줬다.

지난 16일 경남FC를 상대로 11라운드 경기를 치른 부천이 이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3(7승 2무 1패)을 기록, 승점 22(7승 1무 2패)의 광주에 앞서 1위 자리에 랭크됐다.

광주가 전반 8분 만에 선취점을 내줬다.

프리킥 상황에서 시작된 안양의 공격. 김동진이 문전으로 띄운 공을 백동규가 잡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광주 골대를 갈랐다.

전반 27분 광주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허율이 오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길게 공을 보냈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공을 잡은 엄지성이 패스 대신 직접 슈팅에 나섰다. 길게 포물선을 그린 공은 그대로 골대를 가르면서 엄지성의 환상적인 시즌 2호골이 기록됐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호수비를 선보이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했다.

하지만 전반 34분 아쉬운 자책골이 나왔다.

중원에서 공을 뺏기면서 상대의 공격이 전개됐고, 안양 김경중의 왼발 슈팅이 문전에 있던 김현훈의 오른발 끝에 맞고 굴절돼 광주 골대로 향했다.

1-2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가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끌고 왔다.

이번에는 헤이스가 주인공이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허율이 공을 몰고 올라가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두현석과 정호연이 좋은 호흡을 발휘하면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을 좁혀갔다.

정호연의 힐패스를 받은 두현석이 오른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진입한 뒤 중앙에 있던 헤이스에게 재치있게 공을 내줬다.

헤이스가 오른발로 논스톱 슈팅을 날렸고, 공은 안양 골대 우측 상단에 꽂혔다. 헤이스의 시즌 5번째 골이다.

이후 두 팀은 승리를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2-2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K리그2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던 광주의 첫 무승부. 하지만 광주는 코로나19 악재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있었지만, 적지에서 승점 1점을 더하면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광주 이정효 감독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따라간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 주전 대부분이 빠졌는데도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한 점은 긍정적이다"며 "많이 부족하고 첫 무승부를 기록한 게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첫 ACL 16강 도전' 전남 골 침묵에 울다

조별리그서 빠툼에 0-2 패
21일 멜버른시티와 3차전

'첫 16강'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ACL 2차전서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18일 태국 방콕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22 ACL G조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BG빠툼유나이티드(이하 빠툼)에 0-2로 졌다.

수비 조직력을 앞세운 전남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플라나와 박인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하며 전반전을 풀어갔다.

빠툼은 전남수비를 끌어내기 위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세컨드 볼을 공략했다.

전남은 골키퍼 김다솔의 선방과 '짠물수비'로 실점 없이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남이 박인혁과 한호강을 대신해 공격수 카차라바와 박희성을 투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후반 5분 빠툼의 차로엔라타나피롬이 왼쪽 측면에 올린 땅볼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전남이 카차라바와 박희성의 높이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했고, 몇 차례 좋은 기회도 만들었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27분 코너킥 상황에서 빠툼 프라이스완의 헤더가 전남 골망을 흔들면서 0-2가 됐다.

전남은 마지막까지 골 사냥에 나섰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전경준 감독은 "결과는 아쉽다. 하지만 아직 4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서 다음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2차전 소감을 밝혔다. 또 "(두 경기를 하면서)충분히 해볼만하는 걸 느꼈다. 전남은 단순히 K리그2 팀이 아니다. 작년 수원FC, 포항, 울산, 대구 등 K리그1 팀들을 꺾고 FA컵 챔피언 자격으로 ACL에 출전했다"며 "두 경기에 모든 걸 보여줄 순 없지만 전남이 왜 이곳에 왔는지 증명하겠다"고 16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전남은 오는 21일 오후 11시 멜버른시티와 같은 경기에서 3차전을 치른다. 경기는 tvN의 OLIVE 채널 그리고 TVING, 네이버스포츠, 아프리카TV를 통해 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8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빠툼타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G조 전남드래곤즈와 BG빠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전남 이석현이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지 지난해 연승 출발점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 도전

21일 개막…장하나 등 출전

박민지(24)는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석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무려 6승을 쓸어 담았다.

상금왕, 다승왕, 대상을 석권한 바탕이 된 '우승 랠리'의 시발점은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8억 원)였다.

작년 이 대회에서 박민지는 장하나(30)를 연장전에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일찌감치 시즌 첫 우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이후 무섭게 질주했다. 박민지는 "이 대회 우승을 계기로 다승과 많은 우승을 했다"면서 "자신감을 얻은 감사한 대회"라고 말했다

박민지는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연패에 도전한다.

코스는 우승했던 곳이니만큼 익숙하다. 가야 컨트리클럽은 전장이 6813야드로 KLPGA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가운데 가장 길다. 페어웨이가 넓어 장타를 치는 선수들에게 유리하다.

박성현(29), 김민선(27), 이소영(25), 이승연(24) 등 역대 우승자 상당수가 장타자였다.

박민지도 탁월하지는 않아도 장타력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번이 시즌 두 번째 출전인 박민지는 "첫 대회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샷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지의 타이틀 방어에서 가장 큰 변수는 관중이다. 박민지는 통산 10승 가운데 6승을 무관중 대회에서 따냈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때도 관중이 들어오지 못했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관중이 많은 KLPGA투어 대회 가운데 유난히 관중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0년에는 아예 대회를 열지 못했고, 작년에는 관중 없이 치렀던 터라 올해 대회는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우승으로 부활한 장수연(28)과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지영(26)은 일찌감치 시즌 2승 선착 경쟁에 나섰다.

장하나는 작년 준우승 설욕을 벼른다.

이승연, 이소영, 김민선은 대회 2번째 우승을 노린다. 2013년 시작한 이 대회에서 두 번 우승한 선수는 아직 없다. /연합뉴스

나성범 "홈런 물꼬 텄으니 나만 잘하면 되겠죠"

친정팀 NC 상대 시즌 1호 홈런
부담 털고 팀 성적 높이기 최선

기다렸던 첫 홈런포를 날린 나성범이 "나만 잘하면 된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KIA 타이거즈 나성범은 지난 17일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초 1사 1루에서 우중간으로 비거리 135m의 커다란 타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날렸다. 개막 후 13경기 만에 기록된 나성범의 시즌 1호포였다.

앞서 주전 타자들의 부진 속에 KIA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냈던 만큼 장단 19안타의 화력쇼에 이어 나온 나성범의 홈런은 KIA에 반가운 '한방'이 됐다.

나성범에게도 부담을 덜어낸 값진 홈런이 됐다.

나성범은 "신인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홈런이 안 나온 거는 처음이다. 홈런을 치려고 해서 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의식적으로 저도 하나는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 나오면 2~3개가 나오다 보니까 나름 의식했던 것 같다"고 첫 홈런을 언급했다.

팀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했던 만큼 더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나성범은 "제가 노리지 않은 공에도 한 번씩 나가기도 했다. 안 될 때 보면 항상 그런다. 노리지 않은 공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볼카운트도 불리하게 되고, 그러면 투수들은 자신있게 결정구를 던지게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만든 1호 홈런은 공교롭게도 가장 익숙한 NC 창원파크에서 나왔다.

지난 시즌까지 NC를 상징하는 선수로 뛰었던 나성범에게는 아직 창원파크가 가장 편한 곳이다. 익숙한 곳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돈 나성범은 "기분이 묘했다"고 이야기했다.

나성범은 "홈런이 안 나오니까 주변에서 NC전이 곧 오니까 그때 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맞춰서 홈런을 기록했다. 솔직히 어디로 날아갔는지 못 봤다. 맞자마자 감은 왔는데 뛰는데 집중했다"며 "원래는 1루 덕아웃으로 들어가면서 팬분들도 보이고 했을 것인데 3루 돌고 나서 저쪽 덕아웃이 보이는데 차마 못 쳐다봤다. 전 동료들이고 코칭스태프니까 기분이 묘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 2회 초 KIA 4번 나성범이 타석이 들어서며 헬멧을 벗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동료들과의 첫 만남이었던 만큼 경기 첫날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나성범은 "상대가 전 팀원 선수들이었다. 타석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 유격수에 창단 멤버였던 (노)진혁이도 있고, 같이 잘 지냈던 후배들도 몇 명 보였다. 첫날 포수 박대온도 잘 지냈던 후배니까 계속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다보니까 긴장감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안 됐던 것 같다. 너무 편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적으로 만난 동료들에게 몸에 맞는 볼 2개도 기록했던 나성범은 "신신당부했는데"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나성범은 "계약하고 한 번씩 (신)민혁이라든가 (송)명기한테도 연락이 왔었다. 애들한테 삼진은 잡아도 되는데 맞히지만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제구를 깊숙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맞는 볼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러 감정을 안고 다녀온 친정팀과의 첫 원정경기. 나성범은 팬들을 위한 선물도 한가득 안고 창원을 찾았었다. 나성범은 NC와의 첫 경기가 열린 15일 'NC팬 여러분의 많은 응원 감사했습니다'라고 새겨진 박스에 빵을 담아 팬 2000명에게 선물했다.

나성범은 "계약하기 전까지도 고민 많았고, 애정이 있었던 팀이라 계약하고 나서 기분이 묘했다. 저에게 힘이 돼주셨던 팬분들이다. 와이프랑 고민 고민 끝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다"며 "팬들이 잘 할 때나 못할 때나 응원 많이 해주셨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있게 된 걸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다"고 선물을 준비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특별했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첫 홈런포도 날리면서 의미 있었던 주말 원정. 침체 모드였던 팀 타선도 상승세를 타면서 KIA에도 '터닝포인트'가 됐다. 초반 부진했던 김선빈과 최형우도 안타 행진을 펼치는 등 KIA 타선이 움직였다.

나성범은 "선빈이도 형우형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도 당연히 올라와야 하고 저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면서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상혁 시즌 첫 실외경기서도 '가뿐'

종별육상선수권 높이뛰기 2m30 우승…이젠 세계선수권 준비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펼친 '거수경례 세리머니'를 국내 경기장에서 펼쳤다.

관중석에서 우상혁의 경기를 지켜본 육상 꿈나무들은 환호했다.

우상혁은 19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일반부 결선에서 2m30을 뛰어 우승했다. 올해 우상혁이 치른 첫 실외경기였다.

1차시기에서 2m20을 가볍게 넘은 우상혁은 2m26도 1차 시기에서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2위에 오른 윤승현(울산광역시청)의 기록이 2m20이었다.

바를 2m30으로 높인 우상혁은 '가자, 우!'를 외치고 첫발을 내디뎠다.

1차 시기에서는 바를 건드렸지만, 심호흡하고 다시 시도한 2차 시기에서는 바를 넘었다.

흔들림 없는 바를 확인한 우상혁은 양손 검지를 흔드는 유쾌한 세리머니를 펼쳤다.

다음 높이는 2m34였다.

우상혁은 박수를 유도하며 힘차게 뛰었지만 세 차례 시기 모두 바를 건드렸다.

2m34를 넘으면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2m36보다 높은 2m37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첫 실외 경기는 2m34에서 가로막혔다.

우상혁(26)이 19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일반부 결선에서 2m30을 뛴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혁은 사실상 올해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제 우상혁은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다.

'세계 최정상급 높이뛰기 선수'로 공인받은 그는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 초청받아, 세계적인 선수들과 전초전을 벌인다. /연합뉴스